“반세기 예술세계 정리하고 또 다른 출발합니다”

광주시립미술관 아카이브 전 ‘삶과 예술 그리고 여성’전에 참여한 강숙자·박양선·류봉자 작가(사진 왼쪽부터)가 류씨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일천 사진작가 제공〉

강숙자 작 ‘장미빛 인생’

박양선 작 ‘가면의 여인’

광주시립미술관 2월10일까지 아카이브 프로젝트3 ‘삶과 예술 그리고 여성’전 작가 3인

박양선, 여성조각가 드문 시절 활발한 활동

강숙자, 꽃과 여인 테마 독특한 색채감 명성

류봉자 “고교 시절, 국전·도전 출품작 전시”

원로 조각가 박양선(80) 작가의 손은 투박하고 상처 투성이었다. ‘노동하는 손’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오랜만에 만난 박 작가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 서양화가 강숙자(76) 작가는 ‘꽃’과 ‘여인’으로 대변되는 작품 세계에 대해 들려줬다. 온화한 미소의 서예가 류봉자(71) 작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한문 서예 작업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냈다.

지난 연말, ‘광주시립미술관 아카이브 프로젝트 3-삶과 예술 그리고 여성’전의 주인공인 세 명의 원로 여성작가를 만났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대별 대표작들과 함께 전시 팸플릿, 사진, 편지, 신문 기사 등 풍성한 자료,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담은 구술 영상 등이 총망라된 기획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지난 2015년부터 광주·전남 미술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첫번째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김영태·백영수·김옥진·김형수·박남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뤘다. 두번째는 탁연하·조규일·박행보 작가를 돌아봤고 이번에는 지역 여성 미술인에 주목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세 사람은 “작품부터 구술, 아카이브까지 예술 세계를 정리하는 이번 전시가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우홍(宇紅) 박양선 작가는 함경도 원산 출신으로 홍익대에서 조각을 전공한 후 1954년 광주로 시집 와 조각 작업을 계속했다. 1963년부터 12년간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이후 전남대에서도 후학들을 가르친 그녀는 여성 조각가가 드문 시절, 구상·추상 작품을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전시장에서 만난 그녀의 작품들은 인상적이었다. 순수한 어린 소녀상, 삶의 고뇌가 느껴지는 한 사내의 인물상, 절규하는 인간 군상 등 브론즈와 대리석을 주재료로 한 작품들은 강렬하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새삼스레 돌아보니 54년 동안 작업하면서 결국 내 이야기를 많이 담았더라구요. 광주라는 낯선 고장에 와서 때론 상처 받기고 하고, 격려 받기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죠. Y싸롱에서 전시회를 할 때면 사람들이 남자 작가인줄 알고 왔다 여자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곤했죠.(웃음)”

초창기 추상 작업에 집중한 박작가는 1990년에는 구상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며 ‘페르소나’ 연작은 대표작으로 꼽힌다.

“언젠가 가면무도회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가면을 쓰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가면이 또 다른 얼굴인 셈이죠. 페르소나 시리즈는 인간의 양면성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강숙자 작가는 1963년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문화부 기자를 거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미대 졸업 후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진 않았죠. 학교에 다니면서 작업을 같이 했는데 광주여류작가회 창립멤버로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게 됐어요. 당시는 여성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는데, 개개인은 외롭지만 단체는 서로 의지도 되고 그랬죠. 1984년엔 광주여류화가회 회장을 맡기도 했구요.”

1971년 작인 수채화 ‘해경’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중인 강 작가는 꽃과 여인을 주 테마로 삼아 작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독특한 색채감이 눈길을 끈다.

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 박 작가는 “의외로 인물을 그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강 작가는 여자를 그리는데 참 아름다운 얼굴이다 싶었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인 소현(素玄) 류봉자 작가는 남용 김용구 선생을 거쳐 20년 가까이 소암 현중화 선생에게 서예를 배웠다.

“여성이 한문 서예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여성 명필은 없다고도 했죠. 사군자를 배워보라는 말에 허백련 선생에게 배우기도 했는데 두 개를 다 하기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후 서예에 집중했죠.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에게 통신으로 공부하며 참 열심히 했죠. 서예는 무엇보다 필력, 선의 힘이 중요해요. 오랫동안 고민하다 개인 작품 활동과 함께 서예를 가르치는 일에 무게중심을 뒀어요. 서성(書聖)이라 불리는 왕희지의 선생이 여자였거든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써 온 작품들을 돌이켜 보며 감회에 젖었다는 류 작가는 “서예를 처음 시작했던 1963년 여고 3학년 때 쓴 글씨와 서예 공부에 큰 도움이 됐던 국전, 도전 출품작들을 전시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박 작가는 “여자가 대형 조각 작품을 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많이 묻는데 작업에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정열”이라며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한참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바깥이 훤히 밝아올 때가 있는데 그 때의 기분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강 작가 역시 “그런 기분은 작가가 아니면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룹전 등에만 작품을 냈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전시는 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71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립 7주년 광주문화재단 올 신규사업

생활속 문화공간 확대

역동적 예술환경 조성

시민 연대·소통에 역점

“광주 문화 변화시키는 협력 플랫폼으로”

광주문화재단(문화재단)이 오는 13일 창립 7주년을 맞는다. ‘문화의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범한 이후 ‘문화공동체’, ‘협력체계’, ‘플랫폼 구축’, ‘글로컬 시대 개척’, ‘문화민주 실현’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단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 가지 중점목표에 따른 신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광주 문화를 바꾸는 협력 플랫폼’을 비전으로 ‘생활 속 문화공간 확대’, ‘역동적 예술환경 조성’, ‘시민 중심 연대와 소통’ 등 세 분야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인 예술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정율성축제와 같은 계속사업 외에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사업’과 광주문화예술아카이브사업을 병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교향곡, 뮤지컬,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 세 가지 중점 목표에 따른 신규 사업들이다.

◇**미디어아트 허브 구축과 운영공간 특성화**=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국제적 미디어아트 허브 구축에 나선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 조성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6개 공간을 체험교육 장으로 활성화하고, 미디어아트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미디어아트 창의 랩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전통문화관 등 문화공간은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특성화한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형 메세나·창의예술교육·문화예술콘텐츠 확대**=광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생태계를 가꾸는 노력도 계속된다. 문화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을 발굴해 신진예술가를 1 : 1 매칭 지원하는 기업 메세나 프로젝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펀딩 프로젝트 ‘만세만세 만만계’도 더욱 확대 운영한다.

광주형 생애주기별 창의예술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략수립도 본격화한다.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화형 문화예술교육의 비전을 모색하는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광주창의예술학교’를 확대하고 ‘경자씨와 재봉틀’을 중장년 대상 ‘완경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확장 운영한다.

◇**문화예술인·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혁신**=문화예술인, 시민과의 내실 있는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상담소도 운영하고 상시적인 간담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오는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앞 로비에서 ‘오늘과 내일을 잇다’를 주제로 창립7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정현 ㈜툴아이피 1%공작소 대표의 사회로 문화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콰르텟, 보컬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공로자 대상 감사패 증정’, 각계 당양한 분들이 보내온 축사·기념사와 영상 메시지 ‘7주년 축하해요’가 펼쳐진다. 김윤기 대표이사는 ‘2018 올해의 광주문화재단’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자유로운 담소와 네트워킹을 위한 ‘어울림’이 이어진다. 문의 062-670-742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